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River & Culture

1



변 관 우 | 공지천살리기
시민실천단 사무국장
(csd@chuncheon21.or.kr)

공지천의 역사와 문화

1. 들어가며

춘천은 물의 도시이다. 가을 아침 고즈넉한 호수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겨울 동안 물안개가만 들어내는 상고대를 보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된다. 그러나 춘천의 근교농업은 가을철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현상을 매년 겪어야 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인간과 물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부족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걱정인 것이 물이다.



(그림1) 의암호 전경

공지천(孔之川)은 춘천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대룡산에서 발원한다. 동내면 사암리와 신촌리, 학곡리의 여러 지류가 합쳐 고은리 한방병원 앞에서 신춘천과 학곡천이 합류하면서 공지천이란 이름표를 얻게 된다. 폭을 넓히고 제법 하천의 틀을 잡은 물줄기는 태백교 아래에서 거두천과 만나고 이어서 석사교를 지나 퇴계천을 만나면서 춘천시민들의 품으로 흐르는 하천이 된다. 약사천을 합수한 공지천은 의암공원 야외음악당 앞에서 북한강과 합수되어 의암호를 이룬다.

공지천이란 어원은 신촌리 개울을 낀 마을 이름 곰살에서 유래한다. 곰살 앞을 흐르는 개천이라 하여 곰살+내)곰살내로 되었고 곰살내가 음운 변천을 하여 곰살내)곰짓내로 바뀌었다. 우리말로 불리던 정겨운 곰짓내가 37년 무렵 일본총독부가 의도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하면서 샘밭이 천전리가 되듯 곰짓내를 비슷한 한자의 소리음을 따서 공지천(孔之川)으로 명명하게 되었고 그 이름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2008 하천살리기 시민실천단 리포트).

공지천에는 퇴계 이항 선생과 관련된 공지어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춘천 박씨 어머니가 안동의 본거를 둔 이씨 가문의 후처로 들어가 퇴계 선생을 낳았다. 퇴계 이항 선생이 8세



〈그림 2〉 갈수기의 공지천

무렵에 춘천 외가에 내려와 잠시 머물던 때였다. 하루는 머슴에게 짚을 썰어 소여물을 만들라고 했다. 한낮에 여물을 썰라 하기에 좀 이상하게 여겼으나 시키는 대로 짚을 썰었다. 어린 퇴계는 썰어놓은 여물을 삼태기에 담아 퇴계천으로 가지고 나가 뿌리라고 했다. 개울에 뿌린 여물이 이내 물고기로 변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공자의 큰 뜻을 받들어 대유학자가 된 퇴계 선생이 여물을 풀어서 만든 물고기라 하여 이를 공지어(孔之魚)라 불렀다는 속설이 있다(춘주지/84년 춘천시 발행).

춘천지역은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수되어 형성된 의안호를 가지고 있는 호반의 도시지만, 정작 도심지를 관통하는 공지천은 갈수기 건천화를 걱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적 과제로 되어 있다. 호수의 도시에서 물을 걱정하는 풍요 속의 빈곤현상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비단 공지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심형 하천을 조성하려는 여러 도시들과 공지천의 어제와 오늘의 문제를 공유하고자 한다.

2. 공지천의 생태사

공지천은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수리봉(해발 644.9m)에서 발원하여 농촌지역을 흐르는 신촌천과 학곡천과 합류하고, 도시팽창으로 토지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을 흐르는 거두천과 퇴계천이 합류하고, 발원지가 도심지로 변하여 유량이 끊어진 약사천과 합류하여 삼천동 지점에서 북한강에 합류하는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유역면적은 57.20km²이며 유로연장은 10.90km에 달한다.

도심지를 흐르는 하천들이 도시팽창과 맞물려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듯 공지천 또한 토지의 집약적 개발과 맞물려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변태하여 오고 있다. 과거 하천관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지천의 생태환경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천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1 방제사업

하천은 유구한 역사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치

수를 한다고 하천의 물길을 아리저리 돌리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토지이용의 필요성이 하천을 직선화시키고 제방을 쌓아 하천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도심하천들에 있어서 하천폭을 좁혀 직선화시키고, 제방을 쌓는 방식으로 치수사업이 진행되었고, 발생하는 하천부지는 주택지나 도로, 농경지로 활용하게 되었다.

공지천의 경우도 직선화와 수직옹벽 설치 등 각종 치수사업이 진행되어 생태계의 단절을 겪었다. 도심지를 흐르는 악사천은 옹벽설치와 복개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농촌지역을 흐르는 지류들은 하천폭을 줄이고 제방을 쌓아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생각하기 보다는 먹고사는 일이 중요한 시대에 일어난 일반적인 하천정비사업이었다.

공지천 하천정비사업의 특이한 점은 90년대 초 생존을 위한 방재사업이 아니라 수익창출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이던 석사동과 퇴계동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그 지역을 흐르는 공지천도 개발의 흐름을 빗겨갈 수 없었다. 석사동과 퇴계동 지역의 공지천을 복개하여 주차장과 도로로 만들려는 계획

은 철회되었지만, 수직옹벽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하천부지를 상가지역으로 개발하려는 민간자본의 힘을 막지 못하였다. 굳이 민간자본까지 유치하여 하천정비를 하여야 했는지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 이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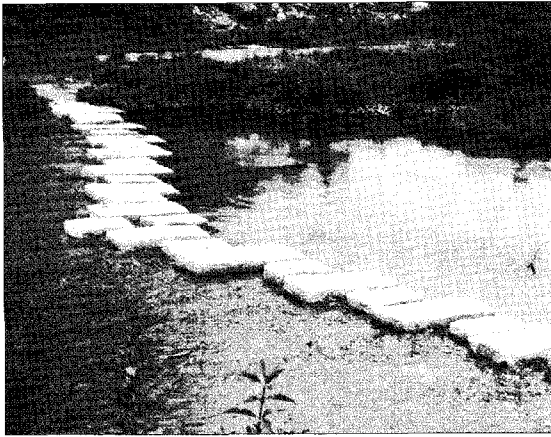
90년대는 그동안 진행된 치수사업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하천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일치된 반성은 있지만 대안은 다양하게 시도되어 전국의 하천이 시험대에 올라 몸살을 앓아야 하는 과도기였다. 생태계 복원과 친수공간 확보에 관한 논쟁이 불붙고, 토목하천과 환경하천 사이에서 다양한 공법을 실험하는 장으로 하천이 전락되었다.

공지천도 여러 번의 대수술을 진행하였다. 하천바닥에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전석을 깔고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만들고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토종어류를 방생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이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공지천도 대수술을 한 후 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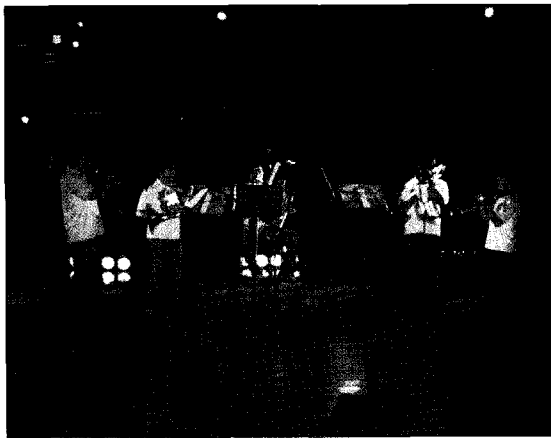


〈그림 3〉 공지천의 수직옹벽

계가 회복되려 하면 또다시 수술대에 올려 생태계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하천정비사업이 반복되고 있다. 공지천은 아직도 공사 중이며 그것의 끝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림 4) 자연형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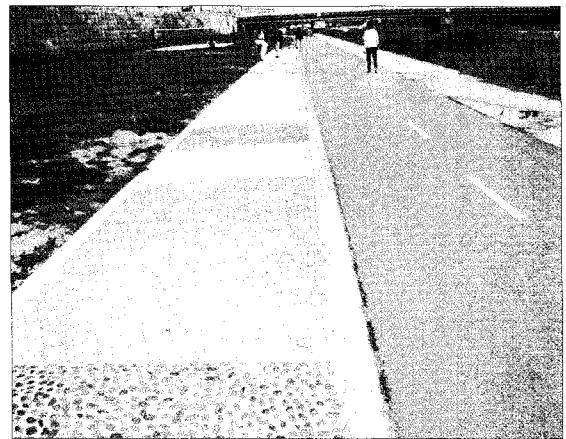


(그림 5) 공지천 작은음악회

몇 년 단위로 하천바닥을 뒤집어 놓는 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의 특성과 정비공법의 발전으로 불가항력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반복되는 하천정비사업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일부이지만 지역에서는 이런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의 생태계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기도 한다. 4대강 사업의 지방적 축소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천은 반복되는 정비사업으로 파괴되든 말든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치적으로 인정되는 지방논리 속에 우리의 하천은 생태계 복원사업이라는 철퇴를 맞아 죽어가고 있다.

2.3 생태하천

공지천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녹색축으로 열섬효과를 억제하는 바람길로 중요한 도시기능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하천내부의 기능에 대하여는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생태적으로 공지천은 상류의 산림지대와 하류의 북한강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좌안과 우안이 옹벽으로 설치되어 도심지와의 생태계 단절을 이루지만 하천 폭이 넓어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사회적으로는 공지천은 여름밤이면 5,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산책로이고 도심지로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하고 가장 빠른 자전거 길이다.



(그림 6) 공지천의 산책로

따라서 공지천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시각과 현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도심형 하천으로 만들자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절대적 빈곤시대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미완성의 하천정책을 볼 때,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줄도 바람직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수많은 친환경적 시민들의 현실적 요구를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하천 활용도 관찰을 것이다. 하천에 대한 인간의 접근을 DMZ처럼 원천적으로 막을 현실적 권력이 없고, 시민의 환경의식이 많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과거 현실적 이익에 집착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불신 때문인 것 같다.

당면한 문제는 자연형 하천론과 도심형 하천론이 대립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하천정비사업을 재단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비판받고 저렇게 해도 비판받는 상황에서 정체 불명의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어 결국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공지천의 하천정비사업보다 어떤 유형의 하천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 시민적 합의는 하천에 대한 애정을 높이고 하천정비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지만, 예산의 집행기간에 발목 잡힌 하천정비사업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공지천만의 사례는 아닐 것이다.

3. 공지천의 문화사

생태하천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연환경뿐 아니라 생활환경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천문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광의의 개념으로 인간의 생활양식이라고 전제할 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지천을 둘러싼 우리들의 생활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것이 공지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순응적 하천문화

1973년 석사동에서 선석기 유물이 출토된 것을 보면, 예로부터 공지천을 따라 농경지가 조성되고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지천 상류지역의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못안과 못밖, 곰실, 오릿갯목, 갈기리못, 약물골, 들우물 등 물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다. 또한 가마바위, 괴박골, 신선바우, 호랑바우굴, 장승배기, 매바우, 아갈바우, 암실, 정지말 등의 지명은 자연형상을 근거로 한 애니미즘적 요소로 그 지역을 경외시하며 불필요한 접근을 막고 물과 산림을 보호하려는 마을의식이 잔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천은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모세혈관으로 기능하였고, 사회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공동우물과 빨래터로 사용되며 이웃주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하천이 생활공간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괴리된 특별한 환경의 식이나 노력이 요구되지 않았다. 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아껴 쓰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천의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하천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름이면 공지천에서 아이들이 먹을 감고, 어른들은 천렵



〈그림 7〉 전국빙상대회

을 하였다. 겨울이 오면 공지천 하류는 전국적인 빙상대회가 열렸으며 춘천초교, 교대부속 학생들은 모두가 스케이트를 탔으며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겨울스포츠의 메카였다.

3.2 대립적 하천문화

70년대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교육열로 춘천 인근지역에서 춘천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었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은 도심지로 흐르는 하천부지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자연스럽게 방제를 위한 제방을 쌓았다. 공지천 하천부지의 개발과 홍수피해를 방재하기 위한 제방은 주민의 하천 접근까지도 방재하는 결과를 낳았고, 자연스럽게 공지천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도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공지천은 생활쓰레기의 투기장으로, 하수물의 배출장으로 전락하였다. 상류의 농촌지역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살포를 근간으로 하는 영농법과 집약적 축산업은 토양의 자정능력을 떨어뜨리고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지천 하류 주변을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정

도로 70년대는 수질과 환경보호의식이 부족하였고, 공지천은 생활공간에서 점점 멀어졌고 혐오스런 공간으로 이미지화 되었다. 여름이 와도 먹 감는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되고, 소양강댐으로 인하여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게 되었고, 공지천 하류의 뱃놀이는 썩은 물 냄새로 인하여 외면받기 시작하였다.

3.3 공생적 하천문화

요즘은 환경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지만, 환경과 수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90년대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지천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지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우리의 관심영역으로 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춘천시민의 공지천 만들기는 시행착오로부터 발전하고 있다.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수직옹벽에 벽화도 그려보고, 담쟁이도 심어보고, 다슬기를 방류하고, 갈대 등의 수생식물을



〈그림 8〉 토종어류 방생



〈그림 9〉 시민실천단 활동

살펴보며 다양한 시민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는 용역을 발주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제방을 헐고 친환경적 전석을 깔고 하수관거를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노력들이 집중호우 등의 천재지변으로 붕괴되기도 하고 책임소재의 논쟁이 벌어지고 또다시 시도하는 등의 일련의 시행착오 속에서 공지천은 새롭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학문적 범주에서 자연형 하천이나 도심형 하천이라는 논쟁과 상관없이 공지천이 시민의 생활공간이 되고 소통하는 마당이 되는 하천과 시민이 공생하는 하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하천을 읍면동 행정조직을 근간으로 하천살리기 시민실천단을 조직하였다. 학곡천, 신촌천, 퇴계천, 약사천 인근의 주민조직과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지천살리기 시민실천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지속적 하천정화활동과 감시활동, 둘째,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하천문화 조성, 셋째, 하천별 특성을 발굴하여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연결, 넷째, 하천별로 1사 1하천 협약식 맺기 운동, 다섯째, 하천정화 활동을 통한 수자원 확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끝으로 공지천살리기 시민실천단은 하천은 생태계의 모세혈관이고, 소통과 교류의 장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이라는 이념 속에서 기후변화시대에 도심지를 관통하는 공지천의 미래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 ●

4. 공지천살리기 시민운동

공지천은 하천정비사업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시행착오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많은 비판과 대안이 난무하지만 긴 역사 속에서 볼 때, 공지천은 우리의 생활공간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하천문화 속에서 공지천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하리라고 믿으며, 그 중심에 공지천살리기 시민운동이 활동하고 있다.

춘천시와 춘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8년 3월 '실개천에 버들치가 뛰어 놀게 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16개 지방2급



〈그림 10〉 공지천 만들기